‘十萬佛’ 상존하는 계곡 속 숨겨진 사원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⑲ 황하의 길목과 병령사 석굴



벽령사 석굴로 가기 위해서는 유가협을 배를 타고 넘어야 한다. 주위 경관이 절경이다.

하서주랑(河西走廊). 황하의 서쪽으로 이어진 협곡. 서역에서 출발하여 당나라의 장안(현재 서안)으로 가는 길, 협곡과 같은 좁은 길목에 황하가 지나간다. ‘물 반, 흙 반’이라는 탁류가 흘러간다. 고대 동서문화를 연결해 주던 길, 바로 실크로드의 중간 거점도시 난주(蘭州)이다. 이 도시는 황하를 끼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S자로 돌아가는 황하의 꼬리부분에 위치한 도시 난주. 이곳 황하에 거대한 물레방아가 돌고, 또 강을 건너는 양가죽 보트도 있다. 양의 머리와 다리 그리고 속의 내용물을 모두 떼어내고 풍선처럼 만든 것, 이들 열댓 마리를 이어 뗏목 같은 모습으로 만든 배이다. 지금은 관광객용으로 강가에 세워놓았다. 원시성의 길, 거기에 ‘깨달음의 길’이 있다.

병령사(炳靈寺) 석굴 가는 길. 고만고만한 산능선, 그렇다고 우거진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황토고원을 끼고 달리는 길. 황토는 빗물에 휩쓸려 강으로 가고, 강은 흙탕물을 만들고, 그래서 황하는 맑지 않다. 중국은 흙의 문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리장성도 그렇고, 진시황 무덤의 병마용도 그렇고, 무엇보다 탑도 벽돌로 세운 전탑의 나라이다.

한국의 돌과 일본의 나무에 비하여 중국은 확실히 흙의 문화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난주지역을 여행하다보면 흙더미를 인상 깊게 볼 수 있다. 민둥산의 흙은 빗물에 쓸려 탁류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병령사 가는 길은 호수를 가로 질러가야 한다. 거대한 인공호수의 선착장에 내려 쾌속선을 타야 한다. 바로 유가협 댐 때문에 의외의 ‘뱃놀이’도 해야 한다. 50km 정도 선유(船遊)를 마무리 할 때, 호수를 감싸고 있는 병풍, 절경은 감탄사를 유감없이 쏟아내게 한다. 호수의 수면에 비친 바위산의 자유분방한 모습은 절경 그 자체이다. 배에서 내려 계곡 안으로 들어서면, 정말 놀라운 바위산이 기다리고 있다. 높낮이나 형태가 제각각인 바위산은 바로 기암괴석의 집적이다. 하늘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바위 작품을 만들었다. 그 바위에 사람은 붓다의 세계를 만들었다. 바로 병령사 석굴이다.

병령사는 티베트 언어로 ‘십만불’이라는 뜻이다. 만불이든 십만불이든 불국토를 의미한다. 숨겨진 계곡에 석굴사원을 경영했다는 사실. 비록 이 지역이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이라 해도 이렇듯 숨어 있을 수 있을까. 그만큼 수행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였는지 모른다.

병령사는 1951년 10월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숨어 있던 존재가 세상으로 나와 절경과 함께 대중의 발길을 이끌기 시작했다. 석굴은 절벽 위 10m 내지 30m 높이에 남북으로 길게 190m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현지에서 배부하는 안내문에 의하면, 세 분야로 분포된 석굴은 216군데로 조상(造像) 8백여 점(일반 책자의 기록은 석조상 694구, 니소(泥塑) 82구) 그리고 석굴 안의 벽화 면적은 1천 평방미터를 이루고 있다.

개창시기는 서진시대 즉 4~5세기로 본다. 1962년 제169굴에서 ‘건흥(建弘) 원년(420년)’이라는 기록을 발견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병령사 제169굴은 중국 석굴 가운데 최고로 오래된 석굴이라는 의미이다. 최고(最古) 석굴이어서 그럴까, 제169굴은 인공 조성이 아니고 천연동굴에 격식을 따지지 않고 자유스럽게 조성했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시설물을 추가했다는 의미이다.

석굴의 시대적 분포는 북조시대의 석굴은 1/3이고, 당 시대의 석굴은 2/3 이상이다. 당나라 이후에 더욱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병령사 석굴은 무슨 이유로 이렇듯 각광을 받았을까. 무엇보다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길목이라는 점, 게다가 지역의 통치자들은 모두 불교신자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경승이 머물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 때 병령사는 하나의 거점이었다. 오늘의 병령사는 쇠락하여 좀 썰렁하기는 하다. 조각도 투박하여 세련미와 거리가 있고, 게다가 색채까지 퇴색하여 화사하지 않다. 세월의 흔적은 석굴을 빈곤스럽게 만들었다.

돈황 막고굴은 석굴 자체가 깊어 벽화 보존 등에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병령사는 석굴 자체의 공간이 좁다. 내부가 쉽게 노출되는 구조라면 세월의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다. 병령사 벽화 가운데 특이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불보살상은 1:6.5~7이나 공양자상은 1:4.5~5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불보살상은 7등신이나, 공양자상은 키가 작은 5등신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특성을 만들었을까. 어쩌면 불보살은 서역 형식을 따른 것이라면, 공양자상은 전통적 대륙형식을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령사 석굴의 중심은 제171굴의 대불이다. 당나라 803년에 만들었고, 높이 27m의 대작이다. 대작이어서 그럴까, 친근미와 다소 거리가 있다. 깎아내린 듯 판판한 단애(斷崖) 한 가운데 불상 형태대로 윤곽선을 파고들어 여래좌상을 조성했다.



벽령사 석굴의 모습. 제171굴에 조성된 대불의 모습이 먼저 눈에 띈다. 당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27m 높이의 대작이다.

유가협 넘어야 만나는 석굴 사원

실크로드 길목 역경승 거처 활용

216곳 석굴에 800여 불상 조성

높이 27m 제171굴 여래상 ‘압권’

169굴 6감의 여래삼존상 주목해야

420년 제작… 중국 최초 석굴 조상

상체는 바위를 깎았고, 하체는 흙으로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로 보아 병령사의 대표적 상징 이미지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세련미와 거리가 있어, 특히 돈황의 석굴미술과 비교되어 아쉽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크다고 무조건 최고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중국 석굴사원 답사에서 쉽게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다.

특히 토함산 석굴암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렇다. 물리적 입장에서만 최고 최대 운운의 자랑은 촌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글쎄, 왜 병령사 대불 앞에서 이런 생각이 더 들까. 어쩌면 이 계곡 앞에 서기까지 아름다운 풍광 즉 호수가의 병풍 형식 바위산과 기기묘묘의 형태에 먼저 익숙해져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석굴을 보자. 제171굴 대불 옆에 169굴이 위치해 있다. 병령사 보물 가운데 보물로 이름 난 석굴이다. 이는 천연석굴을 활용하여 바닥 면적이 반듯하지 않다. 그래도 대형이어서 넓이 약 27m, 깊이 약 9m, 높이 약 15m 정도의 규모이다. 석굴 내부의 조상은 일반적 불교도상학이나 가람배치 방법과 어긋나 있다.

제169굴 안에 천불도, 불전도, 이불병좌상, 석가상, 유마힐상, 아쇼카왕상 등 다양한 상들이 있다. 초기 석굴양식을 염두에 두게 한다. 이들의 시선은 모두 제각각 다르다. 이들 가운데 6감의 여래삼존상은 주목을 요한다. 무량수불상, 대세지보살상, 관세음보살상의 삼존상, 여기에 420년 제작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 불상은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석굴 조상이 된다. 이 불상은 중앙아시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 콧등, 턱 등 얼굴의 중요 부분을 하얗게 칠하는 이른바 하이라이트 기법 즉 오백법(五白法) 혹은 삼백법(三白法)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얼굴 데생에서 힘을 주기 위해, 혹은 그림의 액센트를 주기 위해, 콧등을 하얗게 칠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이런 기법을 병령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유마상은 중국의 초기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마거사는 붓다시대의 재가불자로 유명하다. 병상의 유마를 위해 붓다는 문수보살을 문병 보냈다. 병령사 벽화는 문병 장면을 남겼다. 병상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든 유마와 의자에 앉은 문수, 이들은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불이(不二), 둘이 아니고 하나다. 바로 차별을 경계한 것이다. 유마의 유명한 명언, 그것은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현존 최고(最古)의 유마경 변상도는 제169굴에서 볼 수 있다.

제169굴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조각상이 있다. 바로 고행상이다. 일찍이 간다라 지역의 산물로 나는 라호르뮤지엄에서 고행상을 음미한 바 있다. 세계조각의 역사에서 단연 최고수준에서 언급되어야 할 걸작 중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수준이야 비교할 수 없지만 병령사 석굴에서도 고행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높이 53m 정도, 판판한 석벽 위에 높은 부조형식으로 조각했다. 높은 육계와 머리는 하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두 눈은 지긋이 내려뜨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선정인에 들어 있다. 신체는 말라 수척하나 얼굴에 미소가 스며 있다. 크게 보아 간다라 양식과 연결되어 있다. 북위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병령사 이외 막고굴 제240굴이나 260굴, 운강석굴 12굴 그리고 몇몇 석굴에서 고행상을 볼 수 있다. 간다라는 물론이고 중국 석굴사원에서도 볼 수 있는 고행상, 왜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을까. 고행을 외면한 미술 현장,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